이야기 9 : 한 마리 어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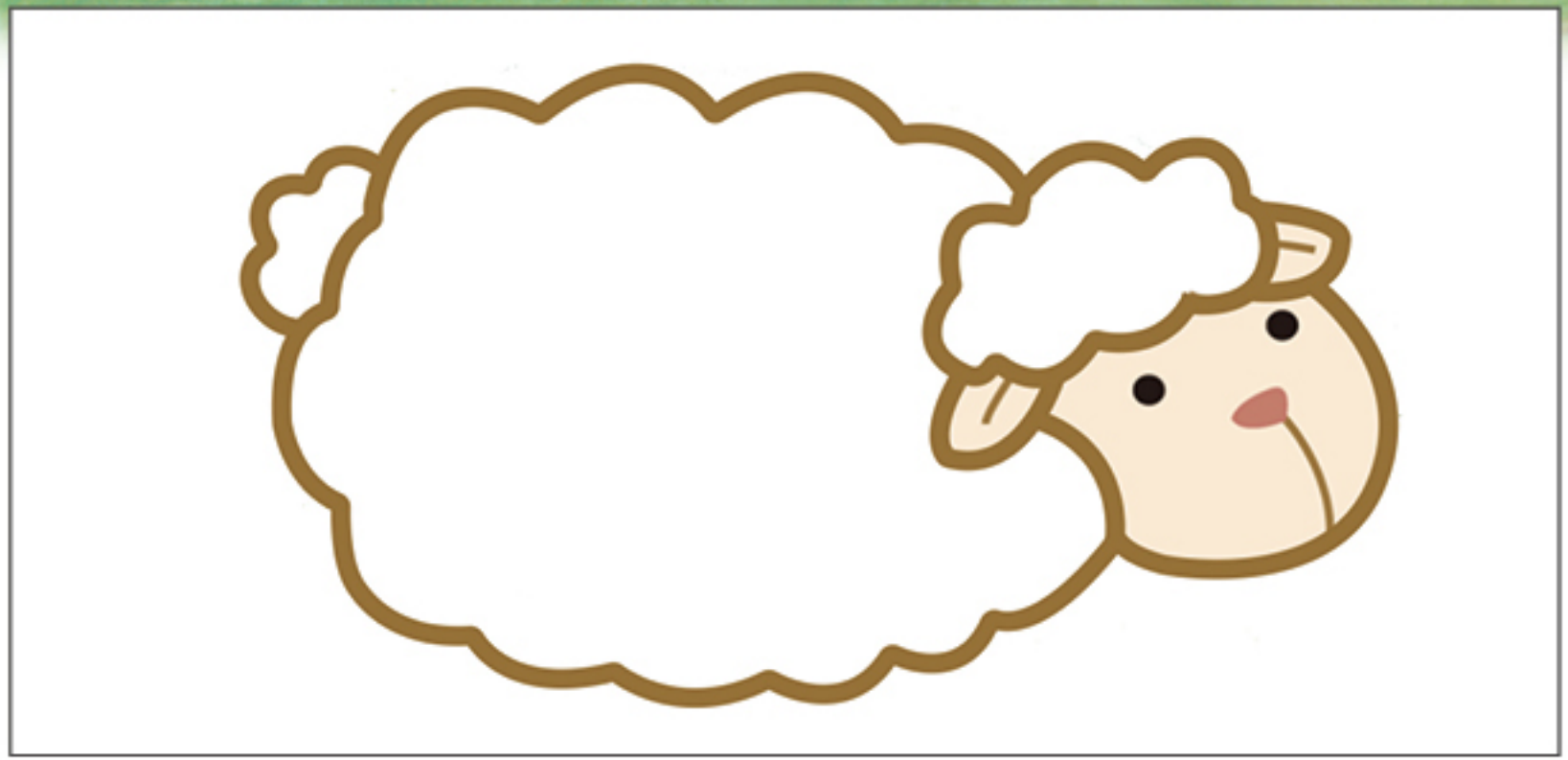
주제말씀
[누 가복음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한가지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 목자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목자는 들판에 있는 양의 수를 세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어 보아도 양은 99마리뿐이에요.
목자는 사라진 한 마리의 양이 걱정돼서 여기저기 찾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밤이 깊어졌어요. 목자는 양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양을 찾아 다녔어요. 바로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목자는 소리 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잃은 양이 벼랑 끝에 매달려 젖은 몸으로 추위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목자는 양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자는 집에 와서 큰 목소리로 부인과 아이들에게 외쳤어요.
"찾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해야겠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으면 기쁘지 않겠니? 하나님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아무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단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있단다. 양도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지.
하지만 낯선 사람을 보면 달아난단다.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면 좋은 목자는 싸운단다. 목자는 절대 달아나지 않아.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줄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활동 1.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활동 2. 솜을 붙여 잃어버린 양을 완성해 보세요.
준비물: 솜, 풀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외우세요 (누가복음 15:7)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